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이승준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30)
작성자 이승준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, 3775-9030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12. 8(목) 조간부터
(온라인 12. 7(수) 12:00 이후)
배포 2022. 12. 6(화)
매수 총 3매

보험연구원, 『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-해외사례를 중심으로』 이슈 보고서 발간

**“효과적인 보험회사 ESG 평가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특성을
반영하여 ESG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”**

-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(ESG연구센터장)과 이연지 연구원은 해외 평가시
장 현황 및 ESG 평가방법을 담아 『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 - 해외사례
를 중심으로』 보고서를 발간
 - 보고서는 회사의 고유 사업모형에 근거한 중요성 평가와 지속가능 공시제도의
정착 등 우리나라 ESG 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도 담고 있음
- (연구배경) 보험회사의 ESG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·평가하고 시장에 전달하
여 ESG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전한 ESG 평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
 -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ESG 평가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평가방법론이 발달한 해
외의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(주요내용) 글로벌 ESG 시장의 구조와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ESG 평
가시장의 문제점 및 관련 규제 도입 논의와 함께 해외 평가방법 사례를 소개

- 지난 10년간 글로벌 ESG 평가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관련 기업들 사이에 인수·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재 약 150여 개 회사가 시장에서 활동
- ESG 평가의 주요 수요는 금융투자자와 투자은행이며 지역적으로는 ESG 관련 공시 등 지속가능규제가 강화되는 유럽에서 60% 이상의 수요를 차지
- ESG 평가방법의 투명성 및 일관성 부재 그리고 기업정보 유출 및 이해상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되며, 유럽을 중심으로 ESG 평가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 시작
- 해외 ESG 평가방법론의 사례로 기업의 위험 노출 및 관리 수준에 맞추어 ESG 성과를 산출하고 등급을 할당하는 MSCI와 FT Russell의 ESG 평가방법론을 소개

○ (개선방향) 국내 보험회사 ESG 평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보험회사와 평가회사 그리고 규제당국에 제시

- 보험회사는 사업모형에 따른 중요성 평가를 거쳐 ESG 요소를 통합하여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실행하여 그 성과를 지속가능공시를 통해 시장에 충실하게 전달
- ESG 평가회사는 효과적인 보험회사 ESG 평가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 맞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가중치를 산정하는 등 보험회사 ESG 평가를 정교화(별첨1 표 참조)
- 규제당국은 지속가능공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공시를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및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

첨부 1: <표> MSCI 보험권역 세분류산업별 핵심지표 및 가중치

<표> MSCI 보험권역 세분류산업별 핵심지표 및 가중치

핵심지표	생명보험	손해보험	재보험	보험중개	결합보험
환경(E)					
기후변화 취약성	4.9	19.4	15.7	5	13
탄소 배출	0.2				
환경영향 자금 조달	0.1				
생물 다양성과 토지 사용		0.2			
사회(S)					
인적자원 개발	16.9	18.8	17.9	23.9	15.9
사생활보호 자료보안	12.9	13.9	9.3	17	12
책임투자	12	13.8	12.9		12
건강 및 인구리스크 보장	11.5	0.5	10.7		7
금융 접근성	7.8	0.1			7
금융소비자보호	0.3	0.2		11.9	0.3
노무관리	0.2				
제조물 안전 및 품질	0.1				
지배구조(G)					
지배구조	33	33.1	33.6	42.2	33
합계¹⁾	100	100	100	100	100

주: 1) 반올림 오차(Rounding Error) 포함
자료: 2020 MSCI Inc.

첨부 2: 이슈 보고서 『보험회사 ESG 평가 현황과 과제 -해외사례를 중심으로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